

역사문헌비평에 대한 평가

An Assessment of
Historico-Literary Criticism

신득일_ 신학박사, 고신대 신학과 교수
Prof. Dr. Deuk-Il Shin

목차

1. 역사문헌비평의 개념과 발전	155
1.1. 개념	155
1.2.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역사서설'	156
1.3. '벨하우젠 학파'와 그 후의 발전	159
1.4. 벨하우젠의 역사문헌비평에 대한 반론	163
2. 평가	165
2.1. 무비판적 수용과정	165
2.2. 헤겔의 역사철학의 영향	167
2.3. 부적절한 문헌구분의 기준	171
2.4. 고고학적 발굴물의 증거	173
2.5. 성경계시의 특성	176
3. 결론	177

주요어 | 역사문헌비평, 역사비평, 문헌비평, 벨하우젠, 헤겔

요약문 |

‘역사문헌비평’이란 제목은 문헌비평과 역사비평을 한데 묶은 벨하우젠의 방법론을 가리킨다. 이 접근방식은 장 아스트릭과 리차드 시몽이 이 방면에서 다양한 이론을 제시한 후 점차적으로 축적되어 수용된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와 종교의 재구성을 담은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역사 서설」은 이 비평방법의 원숙한 성취를 보여준다. 이런 그의 연구가 오랜 기간동안 구약해석과 이해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비평 방법을 무시할 수 없다.

벨하우젠은 그의 책에서 이스라엘 종교사를 세 가지 발전 단계로 분석했다(JE, D와 P). 그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P의 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실제적 역사로, 또 제사장 종교를 과거로 투사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구약에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방법론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이스라엘 종교와 역사의 발전을 밝혀내기 위한 도구로서 역사비평방법의 논지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2) 벨하우젠은 헤겔의 역사철학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종교사를 해석했다. 3) 그의 고전적인 문헌비평은 성경을 고대근동의 성경이외의 자료와 비교하지 않았다. 4) 그의 가설은 고고학적 발굴물의 결과를 간과하고, 자신의 전제를 따라 오직 성경의 내적 증거에만 몰두했다. 5) 벨하우젠의 역사문헌비평은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결함을 가진 이 비평방식은 구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잘 갖추어진 도구도 아니고 그 비평의 파괴성 때문에 구약주석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 방법론은 여러 가지 주석적 문제를 ‘해결’ 했지만 더 많은 새로운 문제를 남겨놓았다.

신득일교수

고신대학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B.A., M.Div.), 동대학교 대학원 신학과에서 교의학을 공부했다(Th.M. 수료),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Drs.) 남아공 노스웨스트 대학교에서 법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Ph.D.).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 연구교수로 있으면서 “The Ark in Redemptive History”라는 책을 출판할 준비를 했다. 현재 저서로는 「히브리어 문법」과 역서로, 「욥기강해」, 「성경지리입문」 등이 있다.

Abstract

An Assessment of Historico-Literary Criticism

Prof. Deuk-Il Shin

The title, ‘historico-literary criticism’ refers to Wellhausen’s methodology in which he combined both literary and historical criticism. This approach has gradually become accepted since various suggestions were made in this direction by Jean Astruc and Richard Simon. Wellhausen’s work,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which treats a reconstruction of Israel history and religion, shows a full-fledged achievement of this criticism. This method of criticism should not be disregarded because his study has swayed the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of Old Testament for a long time.

In his book Wellhausen analyzed the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according to three steps of development (JE, D and P). In regarding the whole of Israel’s history as an unrealistic history created by the idea of P and as back-projection of the priestly religion, he denied Israel’s history depicted in the Old Testament.

However, his method has many flaws as follows; 1. There is insufficient evidence in the argument of the historico-literary criticism in order to elucidate the development of Israelite religion and history. 2. Wellhausen was forced to construe Israel’s religious history through the use of Hegel’s historical philosophy. 3. His classical literary criticism underestimated the comparison between biblical and extra-biblical literature in the Near East. 4.

His hypothesis overlooked the results of archeological excavations, being exclusively engrossed in internal biblical evidence. 5. According to Wellhausen's historico-literary criticism, no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God in human history is made.

The criticism, based on the above-mentioned flaws, is not well-equipped to help in understanding the Bible and is invalid for use in the Old Testament exegesis, mainly because of its destruction. It helped 'solve' many exegetical problems, but it also opened up new problems.

Key words:

historico-literary criticism, historical criticism, literary criticism, Wellhausen, Hegel

1. 역사문헌비평의 개념과 발전

1.1. 개념

역사비평이란 용어는 포괄적인 개념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방법과 관련된다. 즉 문헌비평, 전승사비평, 양식비평, 편집비평 등이 여기에 관련된다. 그렇지만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 용어에 포함된 주석 방법론에 치중할 것이다. 그것은 역사비평과 고전적 의미에서 다루어진 문학비평이다. 역사비평은 본문에 기록된 역사에 대한 해석방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문 자체가 인물, 사건, 사회적 상황이든, 이념이든지 간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석의 과정에서 본문은 그 시대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구약연구에 사용된 역사비평은 성경본문이 역사적 자료를 제공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비평 자체의 성격 때문에 역사비평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성경역사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하는 경향을 띠어 왔다.¹⁾ 이런 입장은 역사를 인과율에 의한 지속적인 인간행위의 결과로 보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역사적 접근방식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과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성경역사를 실제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역사실증주의와 같은 다른 접근방식과도 연결된다.

역사비평과는 대조적으로 문헌비평은 원전문제, 문학양식, 저작성, 다양한 구약문헌의 통일성과 연도와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²⁾ 현대

1) Cf. V. Philips Long, *The Art of Biblical Histo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134.

2) Cf. Jürgen Werlitz, *Studien zur literarkritischen Methode: Gericht und Heil in Jesaja 7,1-17 und 29, 1-8*, BZAW 204, Berlin: De Gruyter, 1992, 27.

문학비평은 '본문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품의 구성, 구조, 문체와 분위기에 관심을 가지지만 고전적 문헌비평은 기본적으로 '원전비평'과 일치한다. 이것은 성경저자가 사용한 문헌을 발견하고 결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성경의 특정 문헌의 단위가 통일성을 가지는지, 편집의 결과물인지는 이 연구의 결과로 결정된다.

이외에 '고등비평'이란 말도 역사문헌비평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로서 이 두 비평을 언급하는데 사용되었다. 만일 고등비평이 특정한 성경자료의 진정성과 사건이나 인물의 역사성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면 성경의미를 추구하는 주석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실 비평이란 말 자체는 중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책임있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1.2. 벨하우젠의 '이스라엘 역사서설'

본고에서 사용한 '역사문헌비평'이란 제목은 벨하우젠이 문헌과 역사적 비평이라는 두 개념을 결합한 그의 연구를 반영하는 것이다.³⁾ 이 접근방식은 파리의 의사 장 아스트뤼크 과 프랑스 카톨릭 사제 리차드 시몽이 다양한 가설을 제시한 이후 점차적으로 누적된 학문적 결과였다. 문헌비평에 대한 벨하우젠의 견해는 실제로 후브펠트에게서 직접 받아들인 것이다.⁴⁾ 그리고 고도로 발달한 그의 역사비평은 헤겔 주의자였던 파트케의 지대한 영향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늘날 현

3) R. Morgen with J. Barton, *Biblical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82.

4) Cf. H. J. Kraus, *Geschichte der historische-kritischen Erforschung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 Neukirchener, 1988, 260.

대문학비평이 본문을 하나의 단위로 보려는 시도로 인하여 역사문헌비평이 과거만큼 지배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지만 이 방법론은 학계에서 여전히 인정받고 있다. 왜냐하면 벨하우젠과 그의 학파가 이루어 놓은 연구의 결과가 구약해석과 연구의 토대로서 오랫동안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벨하우젠은 문헌적 근거에 입각하여 JE, D, P의 편집 순서를 받아들였다.⁵⁾ 그는 이 세 주된 문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종교 발전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단계를 분류했다. 이 세 단계는 1) 분열왕국에 속한 JE 시대, 2) 요시아의 개혁운동 시기인 주전 7세기를 가르키는 D 시대, 3)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와 그 후기로 보는 P 시대로 이루어진다.⁶⁾ 이것은 성경역사와 문헌에 적용된 벨하우젠의 철학적 이념을 예증하는 것이다.

그의 책 「이스라엘 역사서설」(1878)에서 벨하우젠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보여주려고 했다. 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신성시 여겼던 것으로 보이던 다섯 가지 주제를 세 단계의 연대를 따라 나열해서 분석했다: 제의 장소, 제사, 절기, 제사장과 레위인, 성직자의 몫. 각 주제가 원시 종교의 형태 즉 다신론의 형태에서 도덕적 유일신론으로, 또 성숙한 속죄의 종교로 각 단계를 따라 다음과 같이 발전했다는 것이다.⁷⁾

1) 성소: JE시대에는 다신론적인 형태로서 여러 군데 성소가 있었다. D시대에는 요시아가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와 같은 선지자

5) J. Wellhausen,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eorg Reimer, 1927⁶, 6-11.

6) *Ibid.*, 9, 13f..

7) *Ibid.*, 17-162.

들의 메시지의 영향으로 하나의 성소가 요청되었다. P시대는 포로 후기로써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매개로 하여 성소의 통일이 전제되었다. 이것은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역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이다.

2) 제사: JE 시대는 제사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혈연관계속에서 제사를 드렸다. D시대에는 성소의 중앙화로 인하여 제사의 의식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P시대에는 이 의식화 경향이 상세한 규정과 함께 완성되는데, 희생제사의 목적은 속죄이다.

3) 절기: JE시대의 절기는 농사의 축제였다(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D시대에는 절기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함께 기념했다. P시대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절기의 핵심이 되고 안식일과 월삭과 같은 새절기가 첨가되었다.

4) 제사장과 레위인: JE인 사사기와 열왕시대에는 제사장의 직능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개인이 자기 사설 성소를 위해서 제사장을 고용할 수도 있었고, 해고시킬 수도 있었다. 왕도 제사장직을 겸할 수 있었다. D시대에는 요시아의 제의 중앙화로 인하여 예루살렘 제사장 직분에 모든 제사장들의 통합이 요구되었다. P시대에 속하는 에스겔 시대에는 제사장 직분이 사독계열의 제사장에게 제한되었다.

5) 제사장의 몫: JE시대에는 제사장들을 위해 규정된 임금 같은 게 없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기대해야 했다. D시대에는 성직자들이 제사를 집행하는데 따른 보상을 받는 규정된 대가가 마련되었다(신 18).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념의 발전이지 구약에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다. 벨하우젠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는 P의 이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비실제적

역사이며, 제사장 종교를 과거로 투사한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에 묘사된 이스라엘 역사는 신뢰할 수 없는 역사였다.⁸⁾ 그는 율법이 주어진 역사적 상황은 단지 법률 자료를 배치하기 위한 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⁹⁾ 예를 들어 성막의 실재에 대한 성경기록은 단지 신화에 지나지 않으며 광야와 같이 궁핍한 상황에서 그런 값진 물건을 구할 수 없었다고 한다.¹⁰⁾ 또한 구약에서 증거하는 왕국시대의 이스라엘 존재에 대해서는 그것이 신정국가가 아니었다고 하고, 신정정치는 후대의 이상향을 반영한 그림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¹¹⁾ 이스라엘 종교가 원시적 자연종교에서 윤리적 유일신론으로 발전한 것은 선지자들의 사역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벨하우젠은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환상에 기초한 비실제적 역사를 만들고 말았다.

1.3. '벨하우젠 학파'와 그 후의 발전

그의 연구의 영향이 구약분야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벨하우젠 학파"가 출현할 정도였다. 학자들은 나름대로 벨하우젠의 비평이론에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면서 발전시켰다. 이들 중 중요한 지지자들은 부데, 뚨, 쉬타데, 스멘트, 키텔, 아이스펠트, 햄펠, 쉬타에크 같은 자들이 있다.¹²⁾ 그러나 성경 문헌과 이

8) Ibid., 35-38; 340-360.

9) "Historisch ist nur die Form, sie dient dem gesetzlichen Stoff als Rahmen, um ihn anzuordnen, oder Maske, um ihn zu verleben," Ibid., 7.

10) Ibid., 39f.

11) Ibid., 412-420.

12) Cf. Kraus, op.cit., 275.

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들의 역사문헌 비평적 연구는 서로간의 일치를 보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부대는 창세기 2-3장에 관한 연구에서 낙원의 이야기는 J의 보충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충설의 입장을 견지했다.¹³⁾ 스펜트는 보충이 아니라 독자적인 문헌으로서 J, J, E, D, P 문서라는 오문서설을 옹호했다.¹⁴⁾ 아이스펠트는 스펜트의 이론은 '최신 문서설'이라고 하면서 그의 J와 J를 대신해서 L과 J라 는 기호를 사용했다. 기호 L은 '평민문서' (Laienquelle)를 뜻하는데 P에 반대해서 성직자적, 제의적인 경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여겼다.¹⁵⁾ 그후 파이퍼는 '남쪽' 혹은 '세일'을 뜻하는 기호 S를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 보았고,¹⁶⁾ 포러는 유목민 자료(die nomadische Quellenschicht)가 가장 오래 되었다고 했다.¹⁷⁾ 험펠은 J를 J (창세기 12장 이후의 작품), J (요셉 이야기), J (창세기 2-11장)로¹⁸⁾ 나누고 그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로 본 반면에 쉬타에크 J에 대한 어떤 구분도 반대하여 J는 하나의 단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¹⁹⁾ 특별히 폴츠는 E의 독자성을 부인했다. 그는 아이스펠트의 육경연구에 관

13) Karl Budde, *Die biblische paradiesgeschichte*, Giessen: Verlag von Alfred Toepelmann, 1932, 86ff.

14) R. Smend, *Die Erzählung des Hexateuch auf ihre Quellen untersucht*, Berlin: Georg Reimer, 1912, 16-18, 37-39.

15) Otto Eissfeldt,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Tübingen: J.C.B. Mohr, 1964, 224.

16) R.H. Pfeiff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66, 159-167.

17) Sellin-G. Fohr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65, 141ff.

18) J. Hempel, *Die althebrä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 Nachleben*, Wildpark-Potsdam: Athenaion, 1930, 112ff.

19) W. Staerk, Zur alttestamentlichen Literaturkritik, ZAW 42, 1924, 34-58.

한 책을 서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화자를 대할 수 있다. 우선 이른바 E 기자는 독자적인 화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가 존재한다면 그는 기껏해야 그 큰 설화집의 새로운 편집인에 불과할 것이다."²⁰⁾ 폴츠는 화자들이 J와 E를 나누는 근거가 되는 기준은 적합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문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J 기자가 '엘로힘'이란 말을 쓰는 것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사용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P라고 하는 부분을 J로 돌린다. 폴츠는 P도 화자가 아니고, '율법수여자' 혹은 '영적 문서를 기록한 자'라고 주장한다. 이스라엘 종교의 발전과 관련해서 키텔은 모세가 진정한 유일신론을 가르쳤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벨하우젠이 주장하듯이 자연 종교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단일신론으로부터 윤리적 유일신론으로 진화했다는 입장을 취했다.²¹⁾ 역사문헌비평에 대한 이렇게 다양한 경향이 이 비평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스미스가 벨하우젠의 책을 번역함으로써 역사문헌비평의 방법론과 목적과 결론을 보급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방법론을 구약을 해석하는 역사적인 열쇠로 받아들였다. 그는 번역판 서문에서 "구약의 아주 많은 부분이 사상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실제적으로 인봉한 책이 된 주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이 훌륭한 문학작품을 해석하기 위한 역사적 열쇠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 독자는

20) "daß wir in der Genesis nur einen einzigen Erzähler vor uns haben, daβ vor allem der sog. Elohist kein selbständiger Erzähler war, daβ der sog. Elohist, wenn er überhaupt existierte, höchstens Neuherausgeber des groβen Erzählungswirkes war". C. Houtman, *inleiding in de pentateuch*, Kampen: Kok, 1980, 100.

21) R. Kittel,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I*, Stuttgart: W. Kohlhammer, 1912, 187ff.

이 책의 각 부분이 역사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고대 이스라엘이 실제로 어떠한지, 그리고 이 책이 영적 신앙의 역사와 많은 관련을 가지는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²²⁾ 영국에서 벨하우젠의 이론을 영향력있게 보급한 다른 학자는 드라이버였다. 그는 그의 책 「구약문학입문」에서 벨하우젠의 입장을 완전히 수용하여 그 이론을 구약 전체에 적용시켜 성경본문에 대한 문학적 분석을 시도했다.²³⁾ 율법은 서서히 성장하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벨하우젠의 학파의 급진적 입장은 처음부터 독자들에게 와 닿았다. 1880년대부터 그런 진보적 사상과 진화론적 사상의 유형이 영국 지성과 신학계를 점차적으로 잠식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종교에 대한 진화론적 사상은 영국의 비평학계에서 오랫동안 구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어왔다. 영국학계에 미친 벨하우젠의 역사문헌비평의 영향은 「국제비평주석」(ICC)이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발견된다. 이 중에는 그레이의 이사야 주석, 스키너의 창세기 주석, 브릭스의 시편 주석, 토이의 잠언 주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시대정신'을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에 발전적 사상을 적용시켰던 것이다.

독일에서 발생한 구약 연구 방법론이 영국에 파급됨과 거의 동시에 미국에도 소개되었다. 이 새로운 방법론을 받아들인데 선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브라운과 브릭스였다.²⁴⁾ 특히 브릭스는 벨하우젠의 가

22) W. Robertson Smith, Preface, in: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trans. by W. Robertson Smith, Edinburgh: Adan & Charles Black, 1885, vii, ix.

23) S.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891, 1913ⁿ.

24) F. Brown, *Chronicles I&II*, in: DB (Hastings), Edinburgh: T. & T. Clark, 1905, 389ff.; C.A. Briggs, *Higher Criticism of the Hexateuch*, New York: Scribner, 1897.

설과 연관된 자신의 입장 때문에 심한 논쟁에 휩싸였다. 그는 1892년 뉴욕 노회에서 이단으로 심리되기도 했다.²⁵⁾ 이런 사실을 볼 때 당시 미국 성경연구 일반적인 분위기는 극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뷰어, 토이, 토리와 파이프와 같은 여러 학자들은 이 가설이 미국 학계의 경계의 대상이 되에도 불구하고 브릭스를 따랐다.

1.4. 벨하우젠의 역사문헌비평에 대한 반론

벨하우젠의 역사문헌비평이 구약학계에 폭넓은 지지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종교의 역사적 발전과 하나님의 이름을 문헌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는데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대인 학자인 카우프만은 벨하우젠의 결론을 대체로 수용하지만 벨하우젠과는 달리 D와 P의 연대적 순서를 바꾸었다. 그는 P가 포로 이전의 문서로 보고 D보다 이르다고 했다. 왜냐하면 P가 D와 같이 제의의 중앙 집중 체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산당 예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²⁶⁾ 그는 "P의 작품이 포로이후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²⁷⁾ 그는 전체 오경과 창세기 이야기를 가장 이론 단계의 것으로 보고, 율법(토라)이 선지자의 신앙으로부터 후대에 성장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²⁸⁾

25) R.K. Harriso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s, 1985, 31.

26) Y. Kaufmann, *Probleme der israelitisch-jüdischen Religionsgeschichte I*, ZAW48, 1930, 35.

27) *Ibid.*, 42.

28) Y. Kaufmann, *The Religion of Israel: From Its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1, 165.

카우프만은 전체 율법 집성이 포로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포로후기 예루살렘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첫 번째 학자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발전에 대한 그의 견해가 고전적 성경비평적 입장을 취하는 유럽 학계에 정면충돌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는 히브리 종교는 고대 민족들에게 알려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에서부터 출발했다고 보고 아주 이른 시기부터 유일신론이 존재했다하면서 이스라엘 종교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벨하우젠의 견해와 결별했다.

다른 유대인 학자들도 벨하우젠의 방법론에 반기를 들었다. 야콥은 창세기가 하나의 정신에서 나온 통일성 있는 작품임을 강조했고,²⁹⁾ 카수토,³⁰⁾ 하란,³¹⁾ 허비츠³²⁾도 벨하우젠의 역사문헌비평에 부분적으로든, 전체적으로든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카톨릭 학자들 중에는 드 보와 까젤이 이 방법론의 문제를 제기했다. 드 보의 주장에 의하면 “벨하우젠 이후 문헌비평이 이스라엘의 종교사와 관습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도식과 연결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에 대한 문헌비평 방법적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이런 재구성은 약화되어버렸다. ... 오경의 여러 이야기와 율법의 성향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의 상황과 율법의 정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29) B. Jacob, *Das Buch der Tora Genesis übersetzt und erklärt*, Berlin: Schocken Verlag, 1934, 10.

30) U. Cassuto, *The Documentary Hypothesis*, trans. by Israel Abraham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31) M. Haran, Behind the scenes of history: determining the date of the priestly source, *JBL* Vol. 100, Sep. 321-333.

32) Avi Hurvitz, Dating the Priestly Source in Light of the Historical Study of Biblical Hebrew a Century after Wellhausen, *ZAW* 100 Suppl., 88-100.

했다.³³⁾ 까젤은 성경을 해석할 때 발굴된 문헌에 의해 고고학으로 설정된 역사속에서 본문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³⁴⁾ 이것은 벨하우젠의 사변적인 논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더 많은 반론이 있지만 여기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론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2. 평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역사비평을 적용함으로써 말미암아 빚어진 복잡한 해석의 과정은 성경역사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기보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그려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때로는 중북기사, 시대착오현상 등)으로 문헌을 나누는 문헌비평은 성경본문을 혼란스럽게 나누어 놓았을 뿐이다. 이 단락에서는 역사문헌비평이 지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1. 무비판적 수용과정

벨하우젠과 그의 추종자들이 성경문헌을 나누고, 이스라엘 종교와 역사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연대를 잡는데 사용한 역사문헌비평의 논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 그들은 어떤 문헌은 다른 문헌보

33) R. de Vaux, A propos du second centenaire d'Astruc réflexions sur l'état actuel de la critique de Pentateuque, in: *Congress Volume Copenhagen*, Leiden: Brill, 1953, 195.

34) Henri Cazelles, *Ecriture Parle et Esprit; trois aspects de l'herméneutique biblique*, Paris: Desclée, 1971, 151.

다 연대가 이르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제시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설득력이 없다. 사실 벨하우젠의 연구 결과는 그 시대의 문헌비평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데서 기인한다. 예를 들어 그가 사용한 새 문서는 후브펠트에게서, J와 E를 결합한 것은 뉘데케에게서, P의 연대는 그라프에게서 받은 것이다.³⁵⁾ 벨하우젠의 재구성이 의존하고 있는 P의 포로후기 연대에 대한 그라프의 주장도 로이스의 것이다.³⁶⁾ 로이스는 이미 1833년 한 강좌에서 이른바 기본문서라고 하는 P가 가장 늦은 자료라고 발표했다. 그 후 그라프는 1862년 10월 7일자로 그의 스승 로이스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이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경의 전체 중간부분이 포로후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³⁷⁾ 이 확신은 학문적인 검증을 초월한 것 같다. 이것은 성격상 주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벨하우젠의 문헌비평에 대한 확신은 자신의 견해에 반하는 이론을 따지며 객관적인 논증한 결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구약 문헌의 연대를 정한 로이스의 직관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벨하우젠의 생각의 일부가 된 것이다.

35) H.C.C.F. Hupfeld, *Die Quellen der Genesis und die Art ihrer Zusammensetzung, Von neuem untersucht*, Berlin: Wiegandt und Grieben, 1853, VIIIff.; C.H. Graf, *Die geschichtli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Zwei historisch-kritische Untersuchungen*, Leipzig: T.O. Weigel, 1866, 2f.

36) E. Reuss, *L'histoire sainte et la loi*, Paris: Librairie Sandoz et Fischbacher, 1879, 241: “Le code sacerdotal date donc d'une époque postérieure à l'exile et c'est code qu'Esdras et Néhémie ont fait accepter par le peuple vers l'an 444 av. J.-C.”

37) “Dass der ganze mittlere Teil des Pentateuch erst nachexilisch ist, davon bin ich vollkommen überzeugt...” S.R. Külling, *Zur Datierung der “Genesis-P-Stücke,”* Kampen: Kok, 1964, 7.

특히 볼트만의 이데올로기에서 복음으로 개종했다고 하는 란네만은 증거도 없이 소위 과학적인 결과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지를 설명했다. 처음에는 직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개념이 되고, 마침내 전승이 뒤따른다고 했다.³⁸⁾ 벨하우젠에게 있어서 그런 개념은 불가피하게 그를 참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단지 환상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2. 헤겔의 역사철학의 영향

벨하우젠의 방법론과 관련된 시대정신의 철학적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계몽주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저서는 헤겔 역사철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헤겔의 철학적 구조는 철학과 논리, 법률, 역사, 문화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단일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것은 절대자의 실제적 진행 또는 발전을 의미한다. 헤겔에 의하면, 이 절대자는 처음에는 내적 자의식의 직접태(Unmittelbarkeit)로 출발한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개념은 형성되었지만 아직 완전한 현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현실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부정이 일어난다. 이 부정(Negativität)이 대립을 낳고, 이 중으로 대립된 양자간의 차이가 이 대립을 다시 부정하고 주체인 자신으로 다시 반성(Reflexion)한다는 것이다.³⁹⁾ 부정을 통해서 발전하

38) E. Linnemann,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Methodology or Ideology?*, trans., by Robert W. Yarbroug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4, 132-137.

39) G.W.F. 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herausgegeben von George Lasson, Leipzig: Felix Meiner, 1921, 31-39.

는, 진리를 향한 이런 전진 사상은 그의 현상학과 종교철학에서 지배적인 사상이다. 일반적으로 정, 반, 합으로 알려진 이 삼단 패턴은 그의 논리학에서는 구체적으로 유(Sein), 무(Nichts), 생성(Werden)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었다.⁴⁰⁾ 그의 견해에 따르면, Sein은 어떠한 규정도 없으며 내적 자아나 외에 대해서도 차이가 없는 모든 개념의 가장 원시적인 상태이다. Sein의 반대개념인 Nichts는 자아, 완전한 공허, 규정이나 내용이 없는 것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einfache Gleichheit)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둘중 어느 것이 진실한지 결정될 수 없다. 왜냐하면 헤겔은 유한한 주장은 어떤 것도 순수한 진리이거나 순수한 허위가 될 수 없고, 모든 주장은 약간의 진리를 포함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지금 요청되는 것은 상충되는 주장을 결정하는 법적인 판결이 아니라 이 두 주장을 화해시킬 새로운 공식이나 개념이라고 한다. 여기서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인 Sein과 Nichts가 Werden에 의해서 화해하게 된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Sein도 아니고 Nichts도 아니고 Sein이 Nichts 안에서 그리고 Nichts가 Sein 안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것이다. ... 진리는 이렇게 타자속에서 한 존재가 직접 사라지는 운동이다. 즉 Werden, 하나의 운동이다.”⁴¹⁾ 진리가 하나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진리는 과정이라는 말이다. 헤겔은 이것이 모든 학문적 사고의 모델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변증법적 구조속에서 사유의 전체 속성이 종합되는 것이다.

40) G.W.F. Hegel, *Wissenschaft der Logik*, herausgegeben von George Lasson, Leipzig: Felix Meiner, 1948, 66f.

41) Ibid., 67: “was die Wahrheit ist, ist weder Sein, noch das Nichts, sondern daß das Sein in Nichts, und das Nichts in Sein - nicht übergeht, - sondern übergegangen ist. ... Ihre Wahrheit ist also diese Bewegung des unmittelbaren Verschwindens des Einen in dem Anderen: das Werden; eine Bewegung.”

만일 종교를 헤겔의 변증법 사고의 틀속에서 이해한다면 종교는 역사를 통해서 더 나은 단계의 자의식으로 전진하는 무한정신과 유한정신 간의 관계가 될 것이다. 유-무-생성이러는 도식을 따라서 종교는 마지막에 성취했던 최정점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획득된 경험에 의해 재발견된 위치는 마지막 정점이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그가 분류하는 첫 단계(Sein)에 속하는 종교는 자연종교다. 여기에는 중국, 인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종교가 속한다. 둘째 단계(Werden)에 속하는 종교는 정신적 개별종교인데, 발달된 이스라엘 종교, 그리스미적 종교 그리고 로마의 실천종교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단계의 종합은 절대종교인데, 그것은 기독교다. 물론 이것은 헤겔철학속의 기독교다. 그러므로 헤겔의 사변에 의하면 모든 종교는 그 다양한 현상을 따라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로 분류된다.⁴²⁾

헤겔을 따르는 학자들은 구약과 이스라엘 역사 연구에도 이런 사고방식을 적용시켰다. 이들 중에는 유명한 파트케와 게오르게가 있다. 파트케는 이스라엘 종교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연종교시대인 선지자 이전 단계, 모세로 시작한 선지자 시대, 예레미야, 에스겔 등이 활동한 선지자 후 시대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⁴³⁾ 게오르게도 마찬가지로 이른 시기는 신화가 난무한 단계(Sein), 둘째 단계는 종교적 감정을 통제하는 시인과 선지자들의 시대(Nichts), 마지막 시기는 바벨론 포

42) G.W.F. Hegel, *Hegels Religionsphilosophie*; in gekürzter Form/mit Einführung/Anmerkungen und Erläuterungen herausgegeben von Arthur Drews, Jena und Leipzig: Eugen Diederichs, 1905, 189-237, 248-318, 320-331.

43) J.F.L. George, *Die älteren jüdischen Feste mit einer Kritik der Gesetzgebung des Pentateuch*, Berlin, 1835, 11ff.

로 후기인 종교의 완성기(Werden)로 보았다.⁴⁴⁾ 특별히 용어 사용과 책의 구성에 있어서 파트케의 책이 헤겔의 역사철학의 영향을 강하게 드러낸다. 칠백 페이지나 되는 그의 책은 난해한 철학적 구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벨하우젠이 그의 작품의 영향을 받은 사실이 중요하다. 벨하우젠은 자신의 책 이스라엘 역사 서설의 서문에서 그가 파트케에게서 가장 많이 배웠다고 밝히고 있다.⁴⁵⁾

로저슨과 바톤같은 학자들은 오경문헌의 상대적인 연대에 관한 문학적 문제에 집착하면서 파트케의 영향을 의심하고 있지만⁴⁶⁾ 벨하우젠은 헤겔의 역사철학을 통하여 성경본문과 이스라엘 종교와 역사를 해석하는데 주력했음이 틀림없다. 교회에 새로운 통찰력을 제시하고, 성경이해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당대의 시대정신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산물로서 그러한 주석 방법론은 차세대를 위한 적절한 도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역사문헌비평은 독자의 이해를 모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구약에 묘사된 실제 역사를 왜곡시켰다.

2.3. 부적절한 문헌구분의 기준

역사문헌비평이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중복기사, 모순과 시대착오로 보이는 내용을 성경문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은 성경기사와 고대근동의 문헌을 비교연구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료비평과 단편설에 반대한 에발트는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창세기의 통일성을 대단히 강조했다. 특별히 이야기의 통일성과 전개, 구성의 통일성, 언어 사용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원부터 이집트에 정착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자 했던 한 저자의 작품이라고 주장했다.⁴⁷⁾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그의 입장은 그 이름들이 히브리어 본문의 고착된 언어규칙을 따라서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름들은 규정된 표현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어떤 이유로 인하여 바뀌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야기 위에 덧대는 글이 다른 문헌리라는 것이 아니라 고대 문학작품의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에발트는 언어와 문체에서 역사문헌비평의 근거를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은 문서구분의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 에발트의 이후에 발견된 고대문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문서의 기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 증거해 준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여러 신들이 두 개 이상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이다. 바벨론 창조신화 *Enuma elish*에서는 Ea가 Nudimmud이고, Tiamat은 또

44) W. Vatke, *Die biblisch Theologie wissenschaftlich dargestellt I*, Berlin: G. Bethge, 1835, 205ff. "Die spätere religiöse Anschauung des hebräischen Volkes hat daher eben sowohl die sabaische Naturreligion und vorzugsweise die Verehrung des Saturn zu ihrem empirischen Ausgangspunkte, als die Offenbarung der göttlichen Idealität und Heiligkeit zu ihrem höheren Principe," 249.

45) Wellhausen, op.cit., 14: "Meine Untersuchung ist ... nähert sich der Art Vatkes, von welchem letzteren ich auch das meiste und das beste gelernt zu haben bekenne."

46) J. Rogerson, *Old Testament in the Nineteen Century*, London: SPCK, 1984, 266; R. Morgen with J. Barton, op.cit., 79.

47) G.H.A. von Ewald, *Die Komposition der Genesis kritisch untersucht*, Braunschweig, 1823.

한 모신 Thubur이고, Marduk은 또한 Bel이기도 했다.⁴⁸⁾ ‘바알과 아낏과 아캇’이라는 우가릿 시는 Kothar-wa-Khasis가 Hayyirrhk 같은 신이고, Baal은 또한 Hadd인 것을 보여준다.⁴⁹⁾ 고대 남부 아라비아의 스바 비문에는 ‘Almaqah 혹은’ Ilumquh는 Thahwan과 Thwr-Ba`lm이라는 통칭을 가졌다.⁵⁰⁾ 히타이트의 ‘Ullikummi의 노래’에서는 Ullikummi가 Kunkunuzzi-Stone을 가리킨다.⁵¹⁾ 이렇게 한 신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한 토관이나 분리되지 않은 문서에 자유롭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런 현상은 야웨와 엘로힘을 문헌의 표지로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터무니 없는 일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른 차원에서 쓰진은 하나님의 이름을 문서분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반대했다. 그는 칠십인역이나 사마리아 오경같은 고대사본이 엘로힘과 야웨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관성있게 번역, 배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⁵²⁾ 만일 이 이름이 규범적인 기준이 되었다면 고대역본은 일관성있게 그 이름을 번역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그 이름을 고수하지 않고 그냥 ‘주’ 혹은 ‘하나님’으로 대체해 버렸다. 사마리아 오경의 경우는 문제가 되는 이름의 변형이 약 삼백개 중 오직 아홉 개만 있다. 이것은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 이름이 문서의 출처로 보는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48) James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61-72

49) *Ibid.*, 129-142; 149-155.

50) *Ibid.*, 665

51) *Ibid.*, 121-125.

52) J.A. Soggi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by John Bowden from the Italian, London: SCM Press, 1989, 87f.

문서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된 또 다른 기준은 ‘중복기사’이다. 여기서 말하는 중복기사는 단순한 사무엘하와 역대상에 나오는 겹치는 기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과 2장은 각기 다른 기원을 가진 문헌이라는 것이다.⁵³⁾ 즉 창세기 1-2:4a는 P의 작품이고, 창세기 2:4b-3:24까지는 J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문헌비평 입장에서 볼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창세기 2장의 기사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창조가 다른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보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 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키친은 성경과 이집트 문헌을 비교하면서 현재 형태의 문헌에 다른 원전들이 접합된 결과로 보이는, 소위 말하는 중복기사는 사실 고대 근동 문헌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⁵⁴⁾

고대근동 자료와 비교해서 역사문헌비평에서 문제로 삼는 성경의 본문을 살펴 볼 때 비평가들의 주장이 얼마나 주관적인 추론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4. 고고학적 발굴물의 증거

벨하우젠의 연구 성경 내부에만 치중한 것이지 성경외부에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성경바깥의 세계를 보는 시각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그의 결론도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를 간과해버린 결과로 주어진 것이

53) S.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913², 8f.

54) K.A. Kitchen,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London: The Tyndale Press, 1966, 116f.

다. 인간의 행위인 고고학적 발굴이 역사속에서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에 대한 연구에 빛을 던져주었다. 물론 고고학자들의 삽날에 성경의 진리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고고학이 성경본문의 역사성이나 구약의 영적진리의 진의성을 증명해줄 수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이 처했던 역사적인 정황속에서 히브리인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할 때 구약본문과 함께 이스라엘 바깥의 문헌과 역사적 자료가 되는 고고학적 발굴물을 활용할 수 있다”는 렌토르프의 말이 일리가 있다.⁵⁵⁾

실제로 벨하우젠이 “객관적 역사성은 없고, 도식만 남았다”고 하면서 단순히 허구로만 취급하던 족장들의 역사는 누주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발굴의 구체적인 증거로 인하여 논박할 수 없는 실제역사로 볼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특히 누주문서에서 나타난 양자입양, 상속권과 철회할 수 없는 축복 등과 관련된 누주 사회의 관습이 족장들의 풍습과 관련이 있다.⁵⁶⁾ 마리 문서는 족장시대의 장소와 인물과 관련된 문화적 양상을 보여준다.⁵⁷⁾ 이런 고고학적 자료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분열왕국 시대의 산물(JE)로 간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또한 성경고고학은 창세기에서 시대착오로 여겨진 몇몇 이야기에 역사적 증거를 주었다. 예를 들어 올브라이트는 낙타가 족장시대와 같이 이른 시기에 가축으로 사육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족장시대

55) Rolf Rendtorff, *Das Alte Testament: Eine Einführ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2.

56) Pritchard, op.cit., 219-220.

57) G.W. Ahlstro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180ff.

이야기속에 나오는 낙타에 대한 언급은 시대착오라고 했다.⁵⁸⁾ 그러나 낙타가 주전 이천년기 초에 가축으로 사용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즉, 주전 18세기 알랄라크의 사료목록, 메소포타미아 사전의 목록(주전 2000-1700), 사르곤 시대이전(주전 25-24세기)의 마리에서 무너진 집에서 발견된 낙타의 뼈, 비블로스의 불완전한 낙타 부조(주전 19-18세기), 청동기 중기 Tell el-Far'ah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낙타턱뼈 등이 증거가 된다.⁵⁹⁾ 주전 이천년기 초기와 중기에는 낙타가 수단으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창세기에 언급된 것은 특별한 경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12:6; 24:64).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막의 경우를 보면 벨하우젠은 광야의 궁핍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 존재 가능성마저 부인했지만 그런 생각은 실제로 발견된 덩나의 미디안 신전에 의해서 반박된다. 만일 미디안 족속이 주전 이천년기 중반에 화려하게 채색된 신전에서 예배를 했다고 한다면 히브리 민족이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⁶⁰⁾

58) W. F. Albright,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6, 120. 그는 낙타에 대한 기록이 주전 11세기의 설형문자 석비가 최초의 것이라고 보고 청동기시대에는 팔레스틴에는 낙타뼈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드 보는 더 많은 고고학적 증거로 낙타가 팔레스틴에서 청동기시대에 가축으로 사육되었다고 반박했다. 올브라이트 학파에 속한 존 브라이트와 라이트도 올브라이트의 입장을 따랐다.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91, 81; G.E. Wright(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London: Routledge & Paul, 1961, 204.

59) R. de Vaux, *Die hebräischen Patriarchen und die modern Entdeckungen*, Düsseldorf: Patmos, 1961, 57-59.

60) Cf. K.A. Kitchen,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3, 279.

벨하우젠은 신명기를 요시아 시대(주전 7세기)의 산물로 보는 당시의 비평적 견해에 동의하고 이를 수용했지만 고고학적 증거는 신명기가 주전 이천년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히타이트의 수도 보가츠케이에서 발견된 히타이트의 종주권 언약은 어느 정도 신명기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물론 종주권 언약이 신명기에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 시대가 언제인지⁶¹⁾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지만 분명한 것은 신명기를 주전 7세기 산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명기와 종주권 언약과 비교 연구한 클라인은 “신명기의 고대성과 진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주는 암시를 숨겨서는 안된다”고 했다.⁶²⁾

이러한 성경의적 증거는 한때 역사문헌비평이 스스로 ‘객관적’ 또는 ‘학문적’ 작업의 도구라고 자처했지만 그 방법론이 얼마나 주관적이며, 비학문적이었는가를 드러내주었다.

2.5. 성경계시의 특성

성경 자체의 증거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그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벨하우젠의 역사문헌비평은 하나님이 인간 역

61) Hoffner는 구약의 언약형식의 구조와 가장 유사한 히타이트 조약문서의 구조는 주전 1344-1271년 정도로 본다. Harry A. Hoffner Jr., Hittites, in: A.J. Hoerth, G.L. Mattingly and W.M. Yamauchi (ed.), *Peoples of the Old Testament Worl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4, 146.

62) M.G. 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63, 42.

사에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시는 기적이거나 초자연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역사비평 방법은 그런 불가해한 사건을 집요하게 배제하며 다른 해석을 추구한다. 역사비평은 성격상 회의와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역사비평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성경의 본문의 ‘사건비평’으로 통하게 된다. 마이어가 역사비평을 거절하는 이유도 그 비평에 내제된 본유의 성격 때문이다. “본래 역사비평이 지니는 불신임의 성격은 계시의존에 대한 명백한 이탈과 부조화에서 나타난다. 이 방법론은 필요한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⁶³⁾ 이 비평의 성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절대기준이 되는 계몽주의 세계관과 일치한다. 이것은 성경적 믿음을 밀어내는 대체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⁴⁾ 성경해석이 전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종속되는 방법론은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거절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적절한 주석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3. 결론

벨하우젠과 그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설정되고 발전된 역사문헌비평이 성경주석가들이 본문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자극한 점과 성경에 여러 자료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 즉 성경의 다른 책의 저자

63) Gerhard Maier, *Biblische Hermeneutik*, Wuppertal: R. Brockhaus, 1991², 248.

64) R.A. Harrisville, & W. Sundberg, *The Bible in Modern Culture: Theology and Historical-Critical Method from Spinoza to Ksemann*,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95, 262-269.

들이 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cf. 왕상 11:41; 14:19, 29; 대상 29:29; 대하 9:29; 20:34)을 발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자료는 J, E, D, P와 같은 것은 아니다. 이 방법론은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다. 자료에 대한 추측과 확신에 근거한 임의적인 성격, 헤겔의 역사철학적 구조, 성경외적 증거와 고고학적 발굴결과를 무시한 모든 것이 이 방법론의 결함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론을 적용한 성경해석의 결과는 너무나도 파괴적이기 때문에 이 비평은 성경을 정당하게 이해하도록 해석하는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결국 성경주석의 방법론으로서 역사문헌비평은 성경의 역사연구에도 문헌연구에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이론이 되었다. 역사문헌비평은 성경의 수많은 주석적 문제를 '해결' 하려고 노력했지만 더 많은 새로운 문제를 남겨놓았다.

참고문헌

- Ahlström, G. W.,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4.
- Albright, W. F., *From the Stone Age to Christianit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Press, 1946.
- Briggs, C. A., *Higher Criticism of the Hexateuch*, New York: Scribner, 1897.
- Bright, John,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91.
- Brown, F., *Chronicles I&II*, in: *DB* (Hastings), Edinburgh: T. & T. Clark, 1905.
- Budde, Karl, *Die biblische paradiesgeschichte*, Giessen: Verlag von Alfred Tüpelmann, 1932.
- Cassuto, U., *The Documentary Hypothesis*, trans. by Israel Abrahams, Jerusalem: The Magnes Press, 1961.
- Driver, S. 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Edinburgh: T. & T. Clark, 1891, 1913².
- Ewald, G. H. A. von, *Die Komposition der Genesis kritisch untersucht*, Braunschweig, 1832.
- Eissfeldt, Otto,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Tübingen: J.C.B. Mohr, 1964.
- George, J. F. L., *Die älteren jüdischen Feste mit einer Kritik der Gesetzgebung des Pentateuch*, Berlin, 1835.
- Graf, C.H., *Die geschichtlichen Bücher des alten Testaments: Zwei historisch-kritische Untersuchungen*, Leipzig: T. O. Weigel, 1866.
- Haran, M., Behind the scenes of history: determining the date of the priestly source, *JBL* Vol. 100, Sep. (321-333)
- Harrison, R. K.,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895.
- Harrisville, R. A. & W. Sundberg, *The Bible in Modern Culture: Theology and Historical-Critical Method from Spinoza to Ksemann*,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95.
- Hegel, G. W. F., *Hegels Religionsphilosophie*; in gekürzter Form/mit Einführung/ Anmerkungen und Erläuterungen herausgegeben von Arthur Drews, Jena und Leipzig: Eugen Diederichs, 1905.
- _____, *Phänomologie des Geistes*, herausgegeben von George Lasson, Leipzig: Felix Meiner, 1921.
- _____, *Wissenschaft der Logik*, herausgegeben von George Lasson, Leipzig: Felix Meiner, 1948.
- Hempel, J., *Die althebräische Literatur und ihr hellenistisch-jüdische Nachleben*, Wildpark-Potsdam: Athenaion, 1930.

- Henri Cazelles, *Ecriture Parle et Esprit; trois aspects de l'herméneutique biblique*, Paris: Desclée, 1971.
- Hoffner Jr., Harry A., Hittites, in: A. J. Hoerth, G. L. Mattingly and W. M. Yamauchi (ed.), *People of the Old Testament World*,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94.
- Houtman, C., *inleiding in de pentateuch*, Kampen: Kok, 1980.
- Hupfeld, H. C. C. F., *Die Quellen der Genesis und die Art ihrer Zusammensetzung, Von neuem untersucht*, Berlin: Weigndt und Grieben, 1853.
- Hurvitz, Avi, Dating the Priestly Source in Light of the Historical Study of Biblical Hebrew a Century after Wellhausen, *ZAW* 100 Suppl. (88-100).
- Jacob, B., *Das Buch der Tora Genesis übersetzt und erklärt*, Berling: Schocken Verlag, 1934.
- Kaufmann, Y., Probleme der israelitisch-jüdischen Religionsgeschichte I, *ZAW* 48, 1930.
- _____, *The Religion of Israel: From Its Beginnings to the Babylonian Exil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1.
- Kitchen, K. A., *Ancient Orient and Old Testament*, London: The Tyndale Press, 1966.
- _____, *On the Reliability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2003.
- Kittel, 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I*, Stuttgart: W. Kohlhammer, 1912.
- Kline, M. G.,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Michigan: W. B. Eerdmans, 1963, 42.
- Kraus, H. J. *Geschichte der historische-kritischen Erforschung des Alten Testaments*, Neukirchen: Neukirchener. 1988.
- Külling, S. R., *Zur Datierung der "Genesis-P-Stücke"*, Kampen: Kok, 1964.
- Linnemann, E., *Historical criticism of the Bible: Methodology or Ideology?*, trans., by Robert W. Yarbrough,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1994.
- Long, V. Philips, *The Art of Biblical Histo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4.
- Morgen R. with J. Barton, *Biblical Interpre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Pfeiffer, R. H.,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66.
- Pritchard, James B.,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Rendtorff, Rolf, *Das Alte Testament: Eine Einführ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 Reuss, E., *L'histoire sainte et la loi*, Paris: Libraire Sandoz et Fischbacher, 1879.
- Rogerson, J., *Old Testament in the Nineteen Century*, London: SPCK, 1984.
- Sellin-G. Fohr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65.
- Smend, R., *Die Erzählung des Hexateuch auf ihre Quellen untersucht*, Berlin: Georg Reimer, 1912.
- Smith, W. Robertson, Preface, in: J. Wellhausen,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Israel*, trans. by W. Robertson Smith, Endinburh: Adan & Charles Black, 1885.
- Soggin, J. A.,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by John Bowden from the Italian, London: SCM Press, 1989.
- Staerk, W., Zur alttestamentlichen Literarkritik, *ZAW* 42, 1924 (34-58).
- Vaux, R. de, A propos du second centenaire d' Astruc réflexions sur l'état actuel de la critique du Pentateuque, in: *Congress Volume Copenhagen*, Leiden: Brill, 1953.
- _____, *Die hebräischen Patriarchen und die modern Entdeckungen*, Düsseldorf: Patmos, 1961, 57-59.
- Vatke, W., *Die biblisch Theologie wissenschaftlich dargestellt I*, Berling: G. Bethge, 1835.
- Wellhausen, J. *Prolegomena zur Geschichte Israels*, Berlin, Georg Reimer, 1927⁶.
- Werltz Jurgen, *Studien zur literarkritischen Methode: Gericht und Heil in Jesaja 7, 1-17 und 29, 1-8*, *BZAW* 204, Berlin: De Gruyter, 1992.
- Wright, G. E. (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London: Routledge & Paul, 1961.